

Market Issue

미중 정상회담 리뷰: 중장기적 과제는 잔존

-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계 안정을 택한 점이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 미국은 추가 관세 인하, 중국은 핵심 광물 수출 통제 유예 연장에 합의
- 구체적 AI 규제 논의는 부재. 안보 관련 대화는 이어지겠지만 중국과의 경쟁 지속으로 규제 완화 기조는 유지할 전망→한국 메모리를 포함한 AI 관련 기업에게는 긍정적 요인
-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과제는 잔존. 미국은 핵심 광물을 포함해 전력, 배터리, 태양광, 조선 등 의존도 높음. 해당 산업의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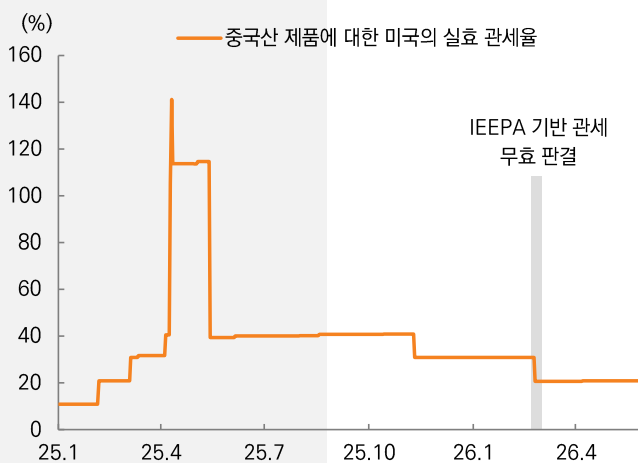
관계 안정이 우선시된 정상회담: 핵심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과제 잔존

9월 미중 정상회담은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측면에서 주식 시장에 긍정적이다.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지만 양국이 지난 정상회담에 이어 관계 안정을 택했다(다음 페이지 표1 참조).

양국은 무역 휴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는데,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중국은 희토류 및 핵심 광물 수출 통제 유예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올해 11/10일 만료 예정이었던 수출 통제 기한은 1월 10일로 2개월 연장됐다. 양국 정상은 오는 11월 APEC 정상회담, 12월 G20 정상회담에 참석해 대화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 회담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중장기적 갈등 요소는 남아있다는 판단이다. 우선 미국의 중국에 대한 희토류, 핵심 광물 의존도가 재차 부각됐다. 25년 10월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광물 수출 통제 유예(1년)를 위해 관세율을 인하했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다. 통제 유예의 2개월 연장 대신 미국은 민감하지 않은 300억달러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인하 추진을 약속했다. 희토류 및 광물 의존도를 유의미하게 낮출 필요성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그림 1. 미국의 대중 관세율 변화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미국 무역 정책 불확실성 지수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1〉 양국의 공식 발표를 보면, 미국은 중국의 에너지 수입 확대, 무역 휴전, 펜타닐과 같은 단기적인 성과에 더 치중한 모습이다. 또한, 중국에 정제유 생산 확대 촉구, 비전략적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이란 이슈에 대한 협력 등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을 의식한 노력을 강조했다.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가 가동되면서 중국 수입품 중 소비재, 저사향 기술 테크 제품 등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중국은 앞서 서술한 관계 안정에 집중했다. 상호주의와 건설적 관계, 향후 회담 합의 내용을 강조했다. 다만, 향후 양국 관계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대만이다. 합의문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지원을 낮추고 독립을 지지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중국의 농산물 수입에 대한 입장차도 남아있다. 미국측 성명문에는 농업 분야 문제를 무역위원회가 처리하는 방안을 명시해 냈지만, 중국의 수입 규모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2천5백만톤의 대두 수입 약속은 이행하고 있지만 다른 농산품의 수입 확대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했다. 농산물 업계는 공화당의 핵심 지지층인 만큼 농산물 수입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민감한 주제다.

표 1.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공식 발표 내용

주제	미국측 발표	중국측 발표
미중 관계	존중, 공정성,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 관계 구축	존중, 공정성,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 관계를 구축
향후 정상회의	양국은 G20과 APEC 개최국으로서 서로를 지원하며, 양국 정상 모두 상대국이 주최하는 정상회의에 참석할 의사를 밝힘	양측은 APEC과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서로 지원하기로 합의. 양국 정상은 서로의 회의에 참석할 예정
무역 휴전	언급 없음. 베센트 재무장관은 2027년 1월 10일까지 2개월 연장을 발표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된 경제·무역 협의 결과의 연장을 지지
무역위원회	미중 무역위원회를 정식으로 가동	무역위원회와 같은 메커니즘의 수립 및 발전을 지지
관세 인하	민감하지 않은 품목 300억 달러 규모에 대해 우호적인 관세 대우를 추진할 예정. 검토 중인 품목: (미국) 농산물·수산물·목재·화장품·의료기기 (중국) 소형 가전·완구·명절 장식품·어린이 카시트	300억 달러 규모의 상호 관세 인하에 합의
시장 접근	무역위원회가 농업 분야 시장 접근 문제를 다룰 실무 그룹을 출범	언급 없음
석탄	중국은 2027년과 2028년에 미국산 석탄을 최소 1,000만 미터톤 수입	언급 없음
투자위원회	잠재적 기회와 장애 요인을 논의하고,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투자 관련 문제를 다룰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위원회를 설립	언급 없음
희토류	공급망 부족에 대한 미국의 우려 해소를 위해 계속 협력하며, 수출 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복귀	언급 없음
석유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 안정을 위한 정제유 생산 확대 촉구	언급 없음
이란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으며, 어떤 국가나 기관도 국제 수로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데 합의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자국의 약속을 지켜야 하며, 어떤 국가나 기관도 국제 길목에 통행료 부과 불가
대만	언급 없음	언급 없음
지정학 이슈	러시아와 북한 문제를 논의	언급 없음
마약 단속(펜타닐 등)	중국의 펜타닐 전구물질 2종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환영. 중국이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을 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점에 주목. 해당 물질의 영구적 통제를 강력히 요구했으며, 관련 범죄로 체포된 중국인 21명에 대해 사형을 포함한 최고형 선고를 촉구	중국어 미국의 마약 단속·법 집행 기관 간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
'초지능' 용어	'인공지능(AI)' 대신 '초지능(Super Intelligence)'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의	언급 없음
AI 대화체	2026년 11월까지 개최될 미중 초지능(SI) 대화체를 신설. 초지능 관련 사고에 대한 양자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	관련 위험과 이익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기 위한 중미 AI 대화체를 신설하며, 다음 회의는 11월에 개최. AI 관련 사고를 위한 소통 채널도 마련할 예정
판다	중국이 애플랜드 동물원에 임대하는 자이언트판다의 도착을 환영	애플랜드 동물원에 임대되는 자이언트판다를 부각
군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러시아·중국 3자 군축 협상을 제안	중미 양국 군은 위기 소통 및 예방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조속히 체결하기로 동의. 중국 내 실종된 미군 유해 발굴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

자료: Bloomberg, White House, 신화통신,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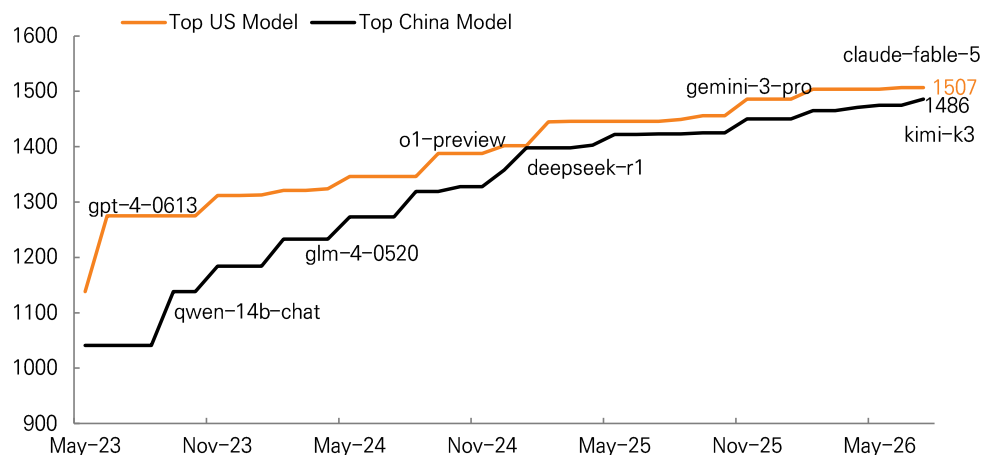
AI 규제 합의는 부재→ 미중 AI 경쟁 지속

미국, 중국의 구체적 AI 규제 합의는 부재했다. 양국은 AI의 위험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US-China Superintelligence Dialogue)를 신설하고 AI 안전 관련 통보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지만, 주로 국가 안보 관련 내용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AI 산업에서 걱정하는 발전 속도를 늦추는 합의는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 전 초지능이 주요 논의 주제가 될 예정이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고 발언해 AI 규제를 강화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반도체를 비롯한 AI Capex 관련 섹터에는 긍정적인 소식이다. 중국이 AI 규제에 힘을 싣는 구도가 나왔으면 미국도 규제 강화에 나설 여지가 생겼겠지만, 합의 부재로 중국과의 경쟁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딥시크, 알리바바의 Qwen, Z.ai 등 여러 중국 AI 기업들이 최신형 모델들을 연달아 발표할 만큼 AI 모델 경쟁력은 상당한 수준까지 높아졌다. 다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AI 규제 강화 정책을 옹호하고 있어, 중간선거 결과와 선거 이후 핵심 민주당 인사들의 AI 관련 행보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메모리 기업 외에도 미국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핵심 광물 외에도 전력기기, 배터리, 태양광, 드론, 조선 등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다. 결국 중국에 대해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에 대한 국내, 비중국 공급망 형성에 계속 힘써야 한다는 의미다. 해당 업종의 한국 기업들에게는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다. 이미 미국은 중국산 태양광, 드론, 전력기기 등에 대한 규제 및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와 같은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림 3. 미국과 중국 최상위 AI 모델 성능 추이 → AI 경쟁 구도는 지속



자료: arena.ai, Stanford AI Index 2026,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